

## 홀로 사는 4050 남성 40대와 50대는 달랐다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1인가구는 34.5%이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38.5%로 가장 높다.<sup>1)</sup> 앞으로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1인가구 평균 연령이 점점 상승한다. 더욱이 1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50대, 2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1인가구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23년 대전에 거주하는 40-50대 남성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조사했으며 결과 중 일부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sup>3)</sup>

### 관계 만족도 비해 떨어지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 특히 40대보다 50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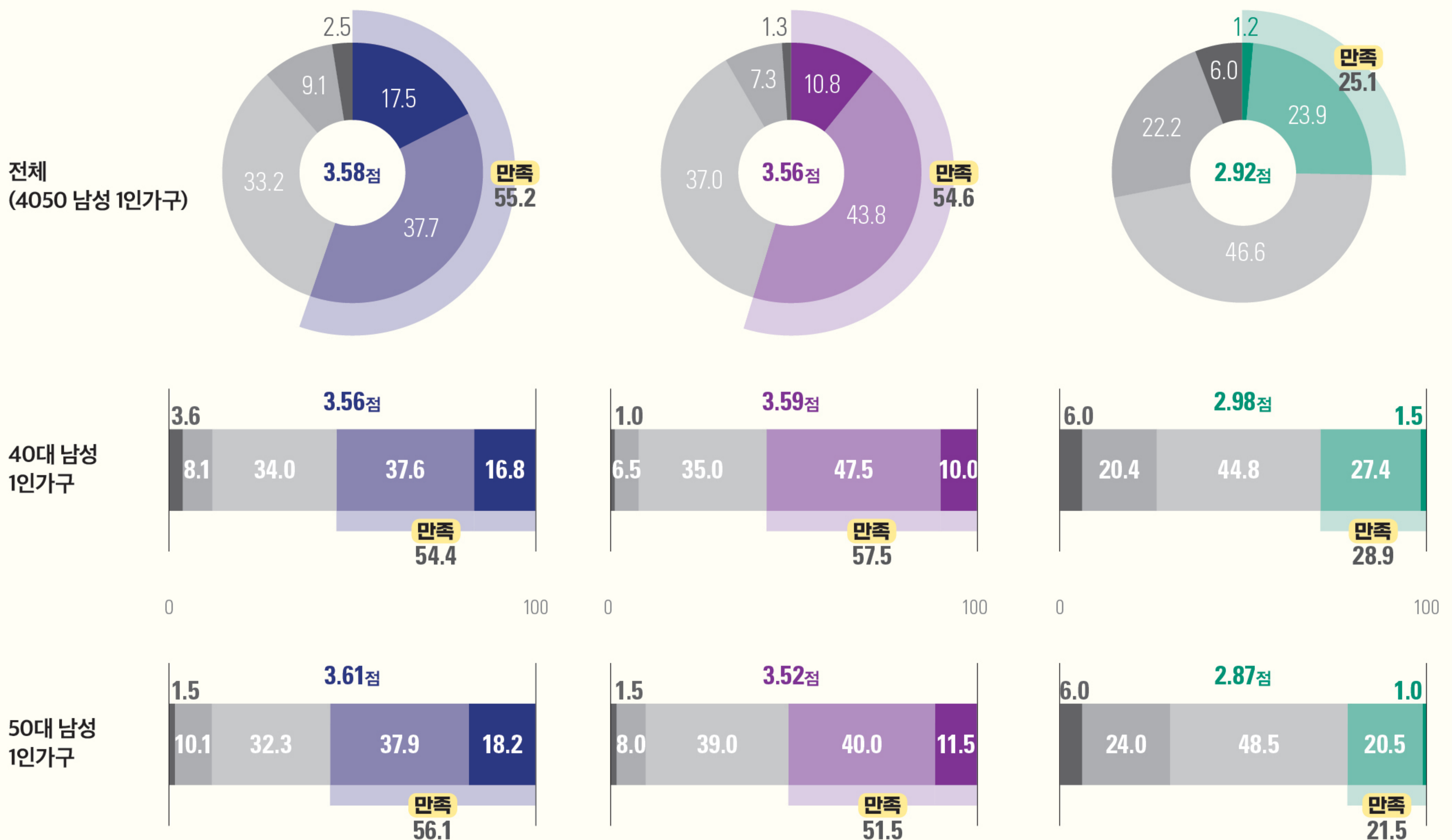
가족과 사회적 친분(친구, 이웃 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58점과 3.5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0대와 50대를 비교해보면, 50대 남성은 가족과의 관계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고, 40대 남성은 사회적 친분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인가구로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두 연령대 모두 평균 3점에 미치지 못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0대(2.87점)가 40대(2.98점)보다 0.11점 낮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단위: % ●: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보통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1) 통계청, 인구총조사

2) 박미선·조윤지(2020),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749호.

3)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광역시 40-50대 남성 1인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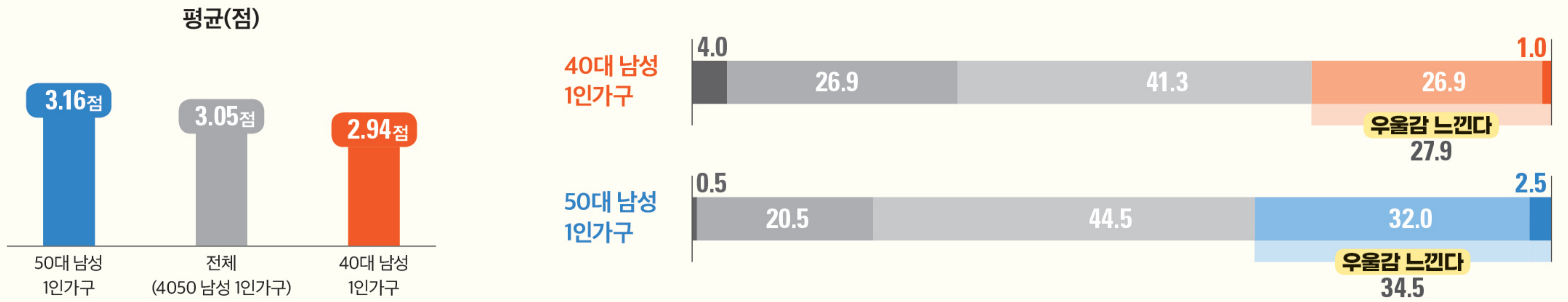
· 제시된 평균 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40대보다 우울감 더 자주 느끼는 50대, 식사 행기는 것도 어려워

평소 40대보다는 50대가 더 자주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은 40대와 50대 모두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40대 35.3%, 50대 31.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외로움'(40대 32.3%, 50대 30.0%), '식사'(40대 19.9%, 50대 30.0%), '불안한 노후계획'(40대 5.0%, 50대 5.5%), '주변의 시선'(40대 4.5%, 50대 2.5%) 순이다. 순위는 동일하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40대보다 50대가 '식사'와 '불안한 노후계획'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50대 1인가구에게 식사는 외로움만큼이나 힘든 점으로 나타났다.

####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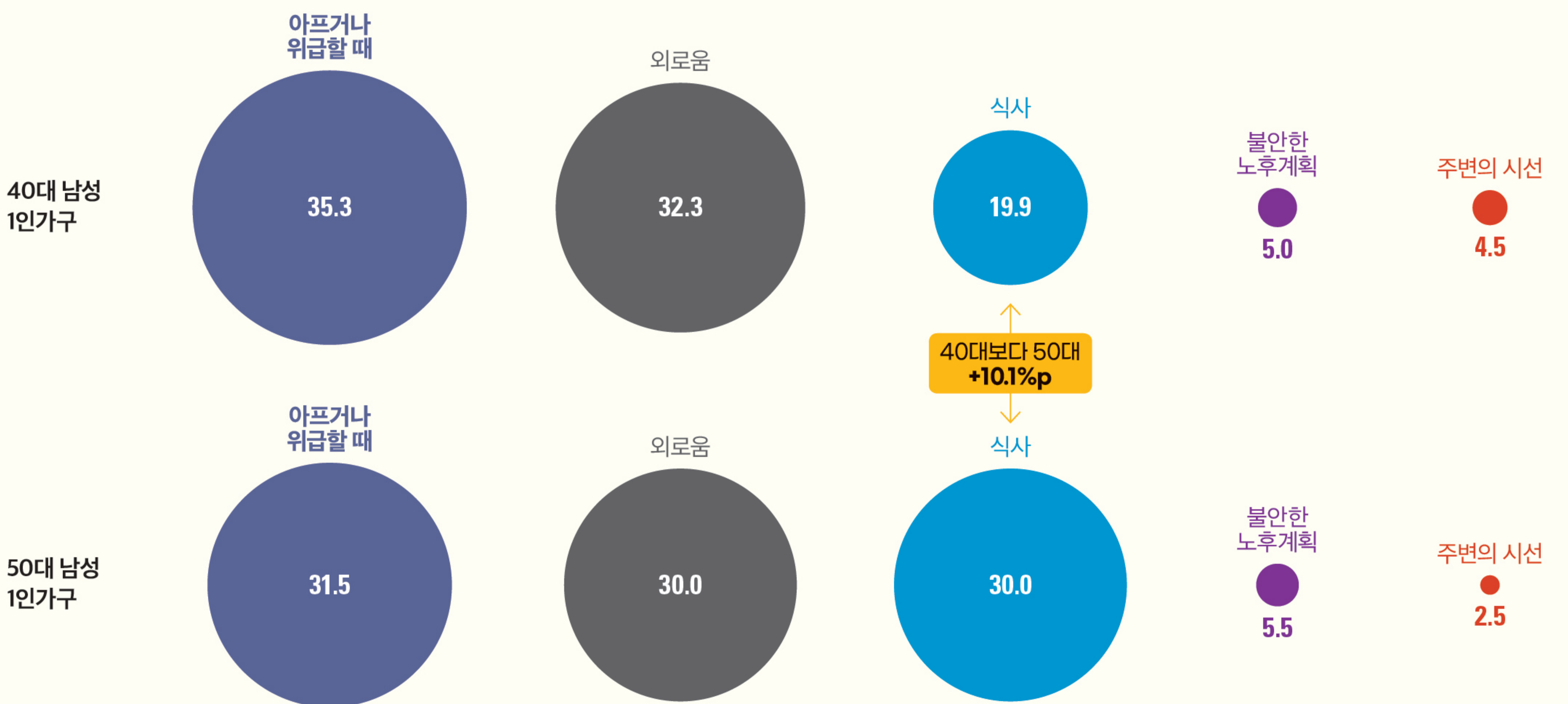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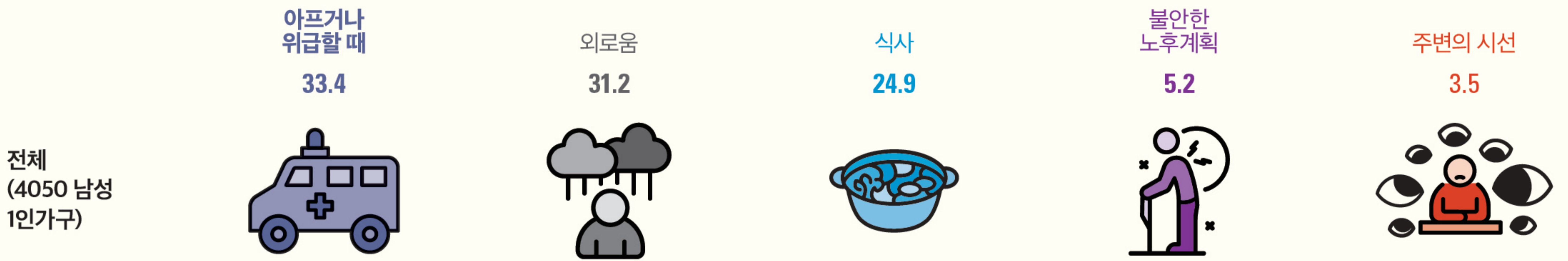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제시된 평균 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것을 의미함

#### 혼자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상위 5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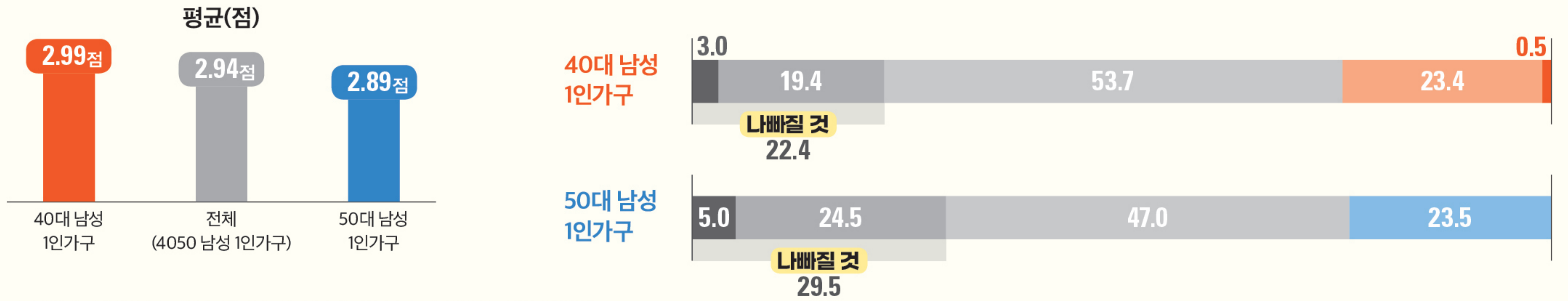
· 주된 응답(1순위만을 집계) 자료임  
·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으며, 상위 5위까지만 제시함

### 미래를 걱정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향후 전반적인 생활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대 22.4%, 50대 29.5%로 50대가 40대보다 비관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경향이 컸다. 40대와 50대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택 안정'(40대 37.8%, 50대 38.0%)을 꼽았다. 다음 순위부터는 다른 양상을 드러냈는데, 40대는 '건강증진'(16.9%), '경제·일자리 지원'(15.9%), '가사활동 지원'(12.9%), '사회적 관계망 형성(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는 '가사활동 지원'(20.0%), '건강증진'(19.5%), '경제·일자리 지원'(11.0%), 주거환경 개선 / 인식 개선(2.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들의 연령대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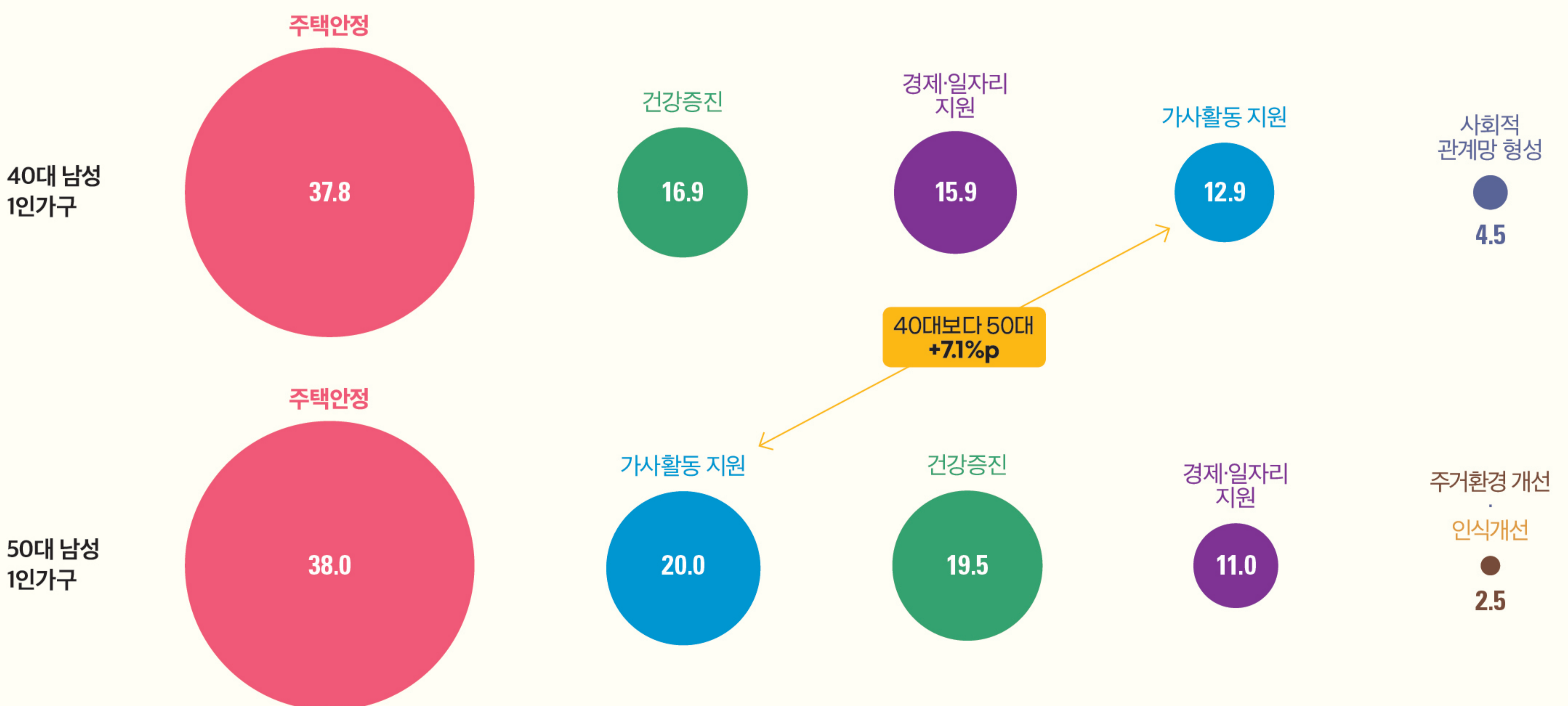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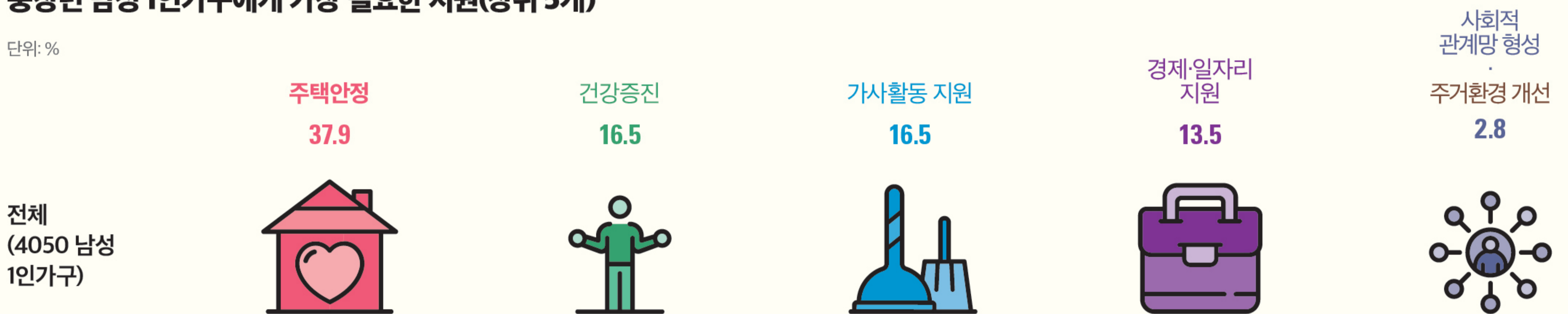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나빠질 것 ●: 조금 나빠질 것 ●: 변화 없을 것 ●: 조금 좋아질 것 ●: 매우 좋아질 것



· 제시된 평균 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함  
 · '매우 나빠질 것'과 '조금 나빠질 것'을 합해 '나빠질 것' 비율을 '조금 좋아질 것'과 '매우 좋아질 것'을 합해 '좋아질 것' 비율을 산출함

###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상위 5개)

단위: %



· 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건강증진(영양 및 신체적, 정신적 질병예방 등), 경제·일자리 지원(구인구직정보, 능력개발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수리, 낙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인식개선(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주된 응답(1순위만을 집계) 자료임

·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으며, 상위 5위까지만 제시함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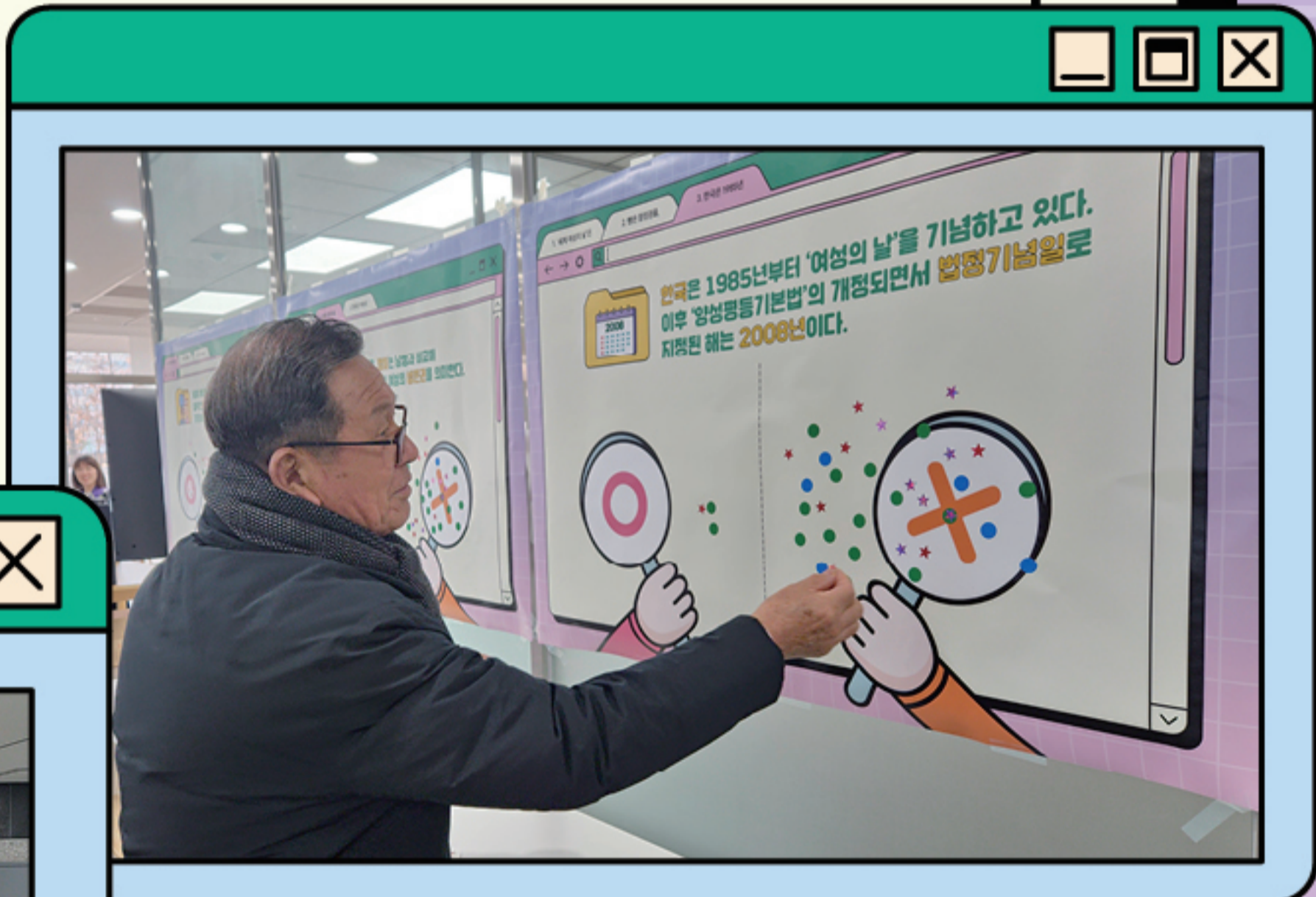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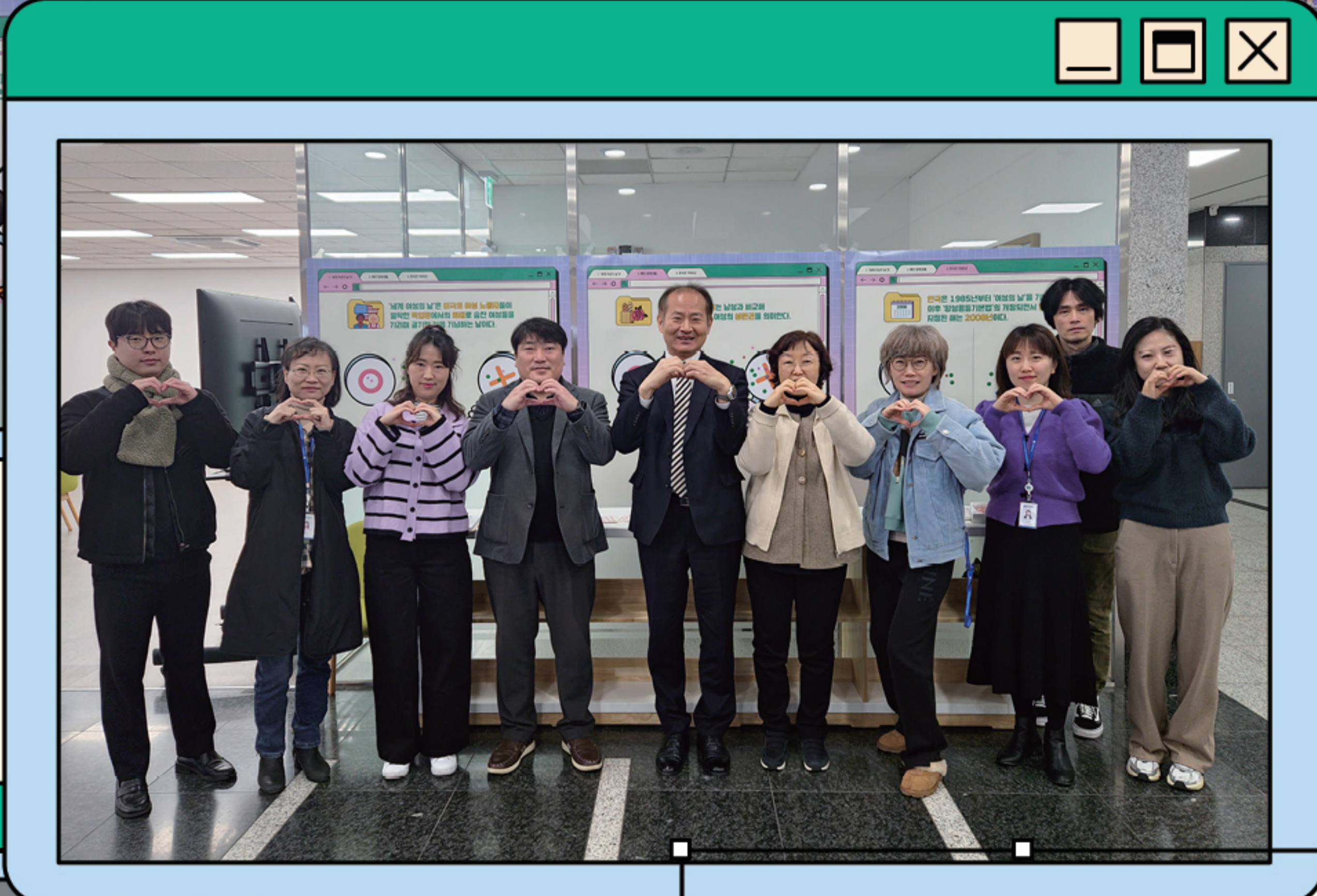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한 번쯤은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116년 전 ‘빵과 장미’를 든 여성노동자들의 외침! 100년이 훨씬 넘도록 이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외쳤다.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올해 캠페인 주제인 ‘포용성을 고취하다(Inspire Inclusion)’에 대해 생각을 공유했으며,  
 세계여성의 날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의미를 되새겼다.

## #세계여성의날



## #INSPIREINCLUSION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대전세종연구원

